



최근 소규모 농촌 지역교육청인 고창교육지원청이 40여건이 넘는 학생들의 무더기 특허출원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 무더기 특허출원 관심사

고창교육지원청, 현재 관내 학생들 출원·보유 특허 400여건 이뤄

최근 소규모 농촌 지역교육청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재)이 40여건(아래 첨부 참조)이 넘는 학생들의 무더기 특허출원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고창발명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양성에 매진한 결과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 서있는 고창발명교육센터(담당 노희현)는 발명영재반 및 특허반을 조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발명·특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을 책임져 나갈 인재 양성과 있다.

센터 담당교사인 노교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인 역경과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재산교육에 매진하는 길 뿐이라며 교직에 첫발을 들여 놓은 순간부터 지금까

지 곳곳에 학생들의 특허취득, 한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 첫째,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School에 고창영재 및 발명심화반 과학발명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현재 5개 발명특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원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중등 과학 발명영재반 전원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전학생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별 프로그램까지 지원받고 있다.

셋째, 지난해 우리청과 MOU 체결한 지식재산센터 지원으로 초등 발명영재반 전원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전자출원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고 있다.

넷째,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중인 중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전액지원으로 창의성 발명 직업 체험과정을 지원받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으로 매년 우수 학생 아이디어가 산업지식재산권에 등록될 수 있도록 무료변리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16년 현재 고창관내 학생

들이 출원 및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400여건에 이른다.

학생들의 특허출원 뿐만아니라 몇해전 국제발명전에서 세계 최초 3관왕 수상은 물론, 국내외 각종 창의성 과학발명대회에서 매년 두드러지는 수상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2016년 또한 대한민국의학발명전시회에서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금년에 대한민국 청소년아이디어경진대회, 전국 학생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대한민국발명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수상을 하고 있다.

위 모든 사업은 서울, 대전 등 대도시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루어 내기 힘든 사업들로, 고창과 같은 농촌 소규모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괄목할 만한 실적이며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차라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김영주 과장님을 비롯, 고창교육지원청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뚝뚝 뚝뚝 추진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대중교통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 설치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시효과가 뛰어나 시인성이 좋은 LED 행선지 안내 대형 전광판을 시내버스 전면부에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야크릴 표지판과 구형 번호판이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설치하는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은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야간이나 원거리에서도 노선번호와 행선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색 컬러 대형으로 설치한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은 차고지에서 즉시 노선 변경이 가

능하고, 경유지는 다음 도착지로 이동 중 주요 경유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노선 개편 시 행선지와 노선번호 변경이 용이하다.

버스 전광판은 노선 표시뿐만 아니라 시정 정보와 혼행제 등 각종 행사, 공연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소식도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제공 가능하다.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버스승강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홈페이지 개편, 버스 운영체계 개선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성황

‘제1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대도시 소비자 500세대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도내 처음으로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추, 배추, 생강, 양파 등을 이용한 김장축제는 임실엔양념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임실고추가공센터에서 진행됐다.

세계김치연구소와 유정임 김치명인의 레시피를 활용한 김장을 비롯해 노래자랑, 퀴즈대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수육과 점심은 물론 김장물품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높여 큰 인기를 얻었다.

군은 최근 1인 세대 및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가로 직접 김장하기 어려운 세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익산시 영동동에서 참가한 최성길 씨는 “김장페스티벌 덕분에 즐겁고 편리하게 김장 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풍성하게 준비해 임실군이 양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장류체험관, 대한민국소비자 브랜드 '대상'

관광자원 인프라 강화 등

신개념 체험학습지로 각광받고 있는 순창 장류체험관이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주권 확립,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 단체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28일 대한민국 국회헌정기념관 2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소비자경영, 브랜드, 서비스, 디자인혁신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14개 기업 및 단체가 수상했으며, 순창군 장류체험관(대표 순창군수 황숙주) 소비자 브랜드대상은 신동원 순창부군수가 수상했다.

2006년에 개관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장류체험관은 그동안 13만여명이 다녀가 17억8,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체험객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통장류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사람받아왔다. 전통고추장을 비롯해 토마토고추장떡볶이, 고추장불고기떡볶이 등 장류요리만들기, 인절미, 튀밥 만들기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흥미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지난 2014년 개관한 용기체험관과 국내 최대 토굴형 저장고인 발효소스토굴이 관광객들에게 상시 개방되는 등 주변 관광자원 인프라 강화도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 주관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시상식에서 신동원 부군수는 “최근 힐링열풍과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순창 장류체험관은 체험도 하면서 숙박까지 할 수 있고, 민속마을 내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순창 특산물 판매까지 연결되는 등 6차 산업화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발효진흥원 발효커피 상품화 '성공적'

2년간 커피 발효기술 연구개발 진행... 유산균·고초균 2개 균주 선발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국내 고유 토착미생물과 전통장류 발효기술을 융합해 기능성과 부드러운 맛이 강화된 발효커피 상품화에 성공해 산업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법인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고부가가치 커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2년간 커피 발효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수백여종의 발효 미생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산균과 고초균 2개 균주를 선별해 맛과 풍미가 우수한 발효커피 '순창발효커피'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순창발효커피'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발효식품 전문

유통판매장 '리던'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판매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커피는 기호식품이지만 최근 들어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질환 예방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상품화에 성공한 '순창발효커피'는 클로로제닉산, 카페익산 등 폴리페놀 등 기능성 물질 발생과 항당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두를 로스팅하기 전에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깊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발효커피 개발은 농축산식품부 지역 전략식품육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2016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도 '순창발효커피'를 대표 출품작으로 전시해, 매우 좋은 평가 관심을 받았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의 미생물을 활용해 장류는 물론 커피에도 접목해 독특한 상품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발효커피 산업은 지역적 특성과 시장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형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순창 발효산업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성수산 생물다양성조사 결과발표 간담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의견 나누

임실군 성수산 생물다양성조사(Biodiversity) 결과발표 및 관계 기관 간담회가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정흠) 주관으로 지난 25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7월 전북에서 2회째를 맞는 생물다양성조사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수산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신평우 부군수를 비

롯해 김정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유천운 사무국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 등 30여명이 자리해 성수산의 생태적 가치와 향후 진행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곤충, 어류, 식물, 조류, 양서/파충류 전문가들은 조사를 통해 식물 263종, 곤충 102종, 조류 15종을 포함해 8개 부분 409종(조사구간에 한함)을 확인했다.

또한 분야별 조사결과 발표와 성수

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신평우 부군수는 "전문가들의 조사내용과 자문은 성수산 생태공원에 적극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천운 사무국장은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 중 그 가치가 확인된 성수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향후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개최

임실군은 최근 지역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열린 제2회 임실치즈축제 및 제54회 사선문화제 축제결과를 제1회부터 보고 받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토의했다.

특히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및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축제육성위원장,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심민 군수는 "내년 축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 대표축제의 위상과 명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리나라 대표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 부위원장 양진성 임실필동농악보존회장, 이만재 전북과학대 교수를 선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성료

2016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가 최근 춘향골체육공원을 출발하여 남원시 일원에서 이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2,000여명의 마라토너 및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대회는 남원시에서 주최하며 전국 마라톤협회, 남원 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하고 Full, Half, 10km, 5km코스도 진행되었으며, 초겨울이었지만 대회당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80대의 최고령 풀코스 참가자부터 아홉 손가락 짚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바탕 한껏 땀 흘릴 수 있어, 참가자가 큰 폭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 남자부 5km코스 정근(17:58), 10km 코스 전재원(40:01), HALF 이재식(1:13:24), FULL 정현(2:46:26)순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여자부 5km 코스 유연자(22:07), 10km 코스 이은혜(40:21), HALF 김귀덕(1:33:23), FULL 원영희(3:37:46)순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